마음생각
둘

성모뜨락

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원목실 박상호(라파엘) 신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분노와 화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끼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야지'하고 결심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고, 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싫어해야지'하고 결심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동료 그리고 친구들과 많이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심하게 자책을 하곤 합니다. '원수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의 안전 교육을 듣고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소마스크에 관한 것인데, 아이와 함께 탑승한 어른은 산소마스크를 써야 될 상황이 오면 먼저 아이의 착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잘 착용한 후에 아이의 착용을 도우라고 교육합니다. 처음 생각에는 '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이를 먼저 착용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 먼저 착용을 시키다가 내가 질식이 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그리고 아이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착용을 잘해야 그다음 안전하게 아이와 다른 사람들도 착용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그것이 그들과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가족, 이웃, 동료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하기 어려운데,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하며 감싸고 참고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내 안에 분노와 화가 쌓여 한꺼번에 화를 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철천지원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살아가며 평생 노력해야 할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서 산소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챙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도 또 그 사람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나 잘못된 일에는 화를 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고, 또 내 자신을 잘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다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